

美·英 명문 대학서 '명상' 주목

성품을 다지고...교유의 장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불자그룹(Buddhist Group at University)'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네소타 데일리(Minnesota Daily), 뉴스@노스이스턴(news@Northeastern) 등은 "이들 불자그룹들이 '성적만을 좇는 대학의 삭막한 풍속'과는 달리 대학생 개개인의 성품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학문을 배워 '알'의 깊이를 더하는 곳인 대학에서 그 배움을 다시 피내야 하는 개개인의 성품, 즉 정신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데, 대학생불자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 등이 그 간극을 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온라인 소식지 '뉴스@노스이스턴(news@Northeastern)'에 따르면, 이곳 대학생불자그룹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불교특강'의 정장자 수가 매년 12% 상승하고 있다.

불자그룹이 현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을 보아야 한다'를 주제로 23일까지 캠퍼스 내 엘 홀(El Hall)에서 2013년도 불교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연사는 콘다나 데로(Kon-danna Thero) 스님이다. 스님은 미국 뉴욕 맨 허트 섬에 있는 스테튼섬(Staten Island) 사원의 원장으로, 지역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계 스님이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알렉산더 리버링 커튼(Alexander Levering Kern·집행위원)은 "우리는 매년 신입 회원들의 불교 소양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노스이스턴대 학생들에게 불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생들은 명상수행을 통해 성적만을 좇지 않고 성품 키우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넓히고,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불교특강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스이스턴 대학 불자동호회는 재학생들 스스로 정신적 가치에 주목하게 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주변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적 일상을 공감하고 이겨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스이스턴 대학은 해외 각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 내 불자그룹의 활동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신흥 명문 노섬브리아 대학(Northumbria University) 대학생불자그룹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클로니클 라이브(Chronicle Live)에 따르면, 노섬브리아불자그룹이 인근 지역 불교공동체인 트로셀 홀 사원(Throssel Hole Buddhist Abbey)과 함께 2005년도부터 매년 가을 '불교와 휴(休)'를 주제로 진행하는 명상 캠프에는 대학생 불자를 비롯해 영국 북동부 뉴캐슬 지역의 불자들 대거

참여, 명상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명상 캠프 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몰간(Daishin Morgan) 스님은 "명상 캠프는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불합리한 생각과 합리적 생각을 통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캠프 참여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클로니클 라이브는 "노섬브리아불자그룹이 격월로 진행되는 '국제 점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3파운드 비용만으로 '채식 스프', '곡물 빵', '국수' 등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의 명문 사립에 유학 온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서도 2005년 대학생불자그룹이 결성, 활동하고 있고,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에서는 명상 스쿨이 운영되고 있고,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에서는 불교명상그룹(Buddhist Meditation Sangha) 등이 주목받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의 대학생불자그룹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알렉스 할리(Alex Haley)는 "내 경험으로 명상은 대학생에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다"며 "이는 대학 졸업 후 사회 공동체 곳곳에 공헌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 트리뷴(The News Tribune)에 따르면, 마이애미 대학의 명상 스쿨 운영을 맡고 있는 니메로프(Nemeroff)는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명상 스쿨은 그러한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말했다.

뉴스 트리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15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명상 스쿨은 '15분~20분 명상'과 '5분 포옹'을 반복하며 진행되는 데 재학생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시아 불교미술·도상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45·괄)

존 C. 헌팅턴 美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존 C. 헌팅턴(John C. Huntington) 美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아시아 전역의 불교 예술과 도상(圖像)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20여 년간 인도·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 찍은 불교문화 및 예술품 사진 3만 여점을 모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부인인 수잔 L. 헌팅턴(Susan L. Huntington)과 함께 '헌팅턴 아카이브'(http://huntingtonarchive.osu.edu)를 운영하면서 아시아미술관련 사진 3만 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 헌팅턴부부의 자료실은 인도미술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이트일 정도로 유명하다.

헌팅턴 교수는 1969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티베트 회화의 스타일(Styles and Stylistic Sources of Tibetan Paintings)'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70년부터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동아시아예술, 아시아불교도상을 가르치고 있다.

1986년 헌팅턴 교수는 부인인 수잔 헌팅턴 오하이오 주립대교수와 연구영역을 넓혀 세계지역의 불교사진을 찍는 데까지 확대한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헌팅턴 아카이브'다. 이 헌팅턴 자료실은 학술 연구 및 교실 수업을 위한 범 아시아문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과 연구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존 헌팅턴과 수잔 헌팅턴의 40여 년의 연구 업적이 담겨있는 아카이브 자료실에는 1969-198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까지 아시아미술과 불교미술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찾아볼 수 있고, 고해상도의 확대사진도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전통 예술작품들이 불교에서 기원한 만큼 불교용어사전과 아시아의 지도 불교도상백과사전 등도 제공되고 있다.

현재 그는 아시아와 인도네시아 전역의 불교예술과 도상을 주요관심분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불교방법론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웹툰판물과 저서 <중국 불교미술 (Chinese Buddhist Art)> <네팔 네와르 불교의 미술(Art of Newar Buddhism, Nepal)> <고대인도의 미술: 불교·힌두교·자이나교(The Art of Ancient India: Buddhist Hindu and Jain)> 등을 통해 살필 수 있으며 헌팅턴 아카이브에 마련된 색션을 통해 볼 수 있다.

헌팅턴 교수가 수집한 문서들은 불교뿐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등 여

인터넷아카이브 3만여점 공개

인도·중국 등 아시아 불교미술

한국 불교문화재 없는 점 아쉬워

리 종교에서 기원한 조각과 그림들도 있다. 이들 작품은 2500년 전의 예술품부터 근대아시아 미술까지 포함되었으며 그의 자료는 아시아와 유럽 및 미국 지역의 박물관과 건축 현장작업에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최근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귀중한 노하우인 것처럼 생각해 쉽게 내놓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팅턴 교수 부부가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헌팅턴 부부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불교문화재 카테고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나는 기자

美 불자수, LA 많고 버밍엄 적어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는 산호세가 불자비율 높아

미국에서 불교신자가 가장 많은 도시와 가장 적은 도시는 어디일까.

미국의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미국종교단체분석협회(ASARB: Association of Statisticians of American Religious Bodies)'가 2010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종교 인구조사(2010 US Religious Census: Religious Congregations & Membership Study)'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ASARB는 연구조사에서 뿌리는 동일하지만 전통과 의식이 달라 세분화된 종교까지 포함해 총 235개의 종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신도수와 신도들의 정보 등을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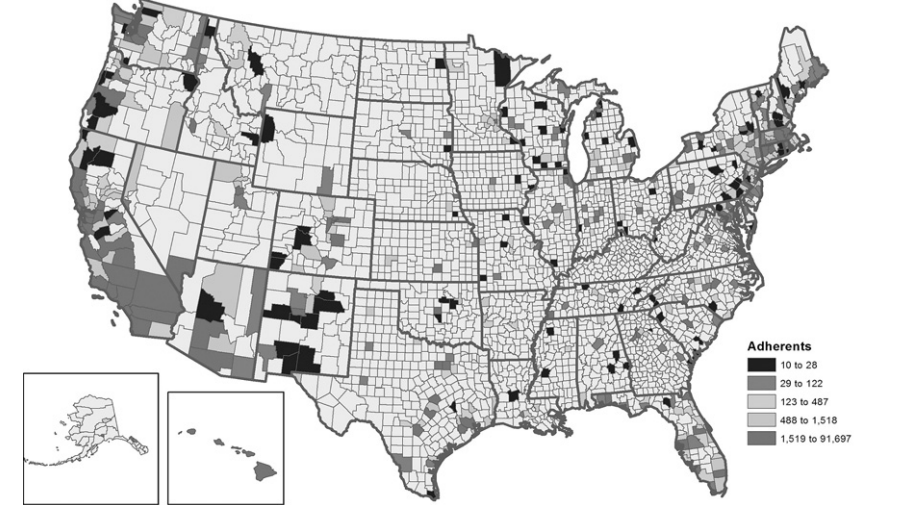
불교지지지자, 불교신자의 75%가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 가운데서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1.25%가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해 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알라바마주의 버밍엄지역은 0.0006%로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9만 1683명의 응답자가 불교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2854명의 응답자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11만 7000명의 불교 지지자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했다. 반면 알라바마



미국종교단체분석협회(ASARB)는 2010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인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동부와 서부 해안가에 불자들이 많다.

주의 버밍엄지역의 불교지지지자는 64명으로 파악돼 가장 적은 수의 불교지지지자가 있는 곳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높은 수인 243명의 불교신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알라바마 버밍엄에서는 2명의 불교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전국의 535카운티의 거주자가 불교 지지자라고 밝혔으며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불교지지지자들은 동부나 서부 해안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는 기자



존 C. 헌팅턴, 수잔 L. 헌팅턴 부부가 운영하는 '헌팅턴 아카이브' 사이트. 3만 여점의 아시아 예술작품 이미지가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정체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요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속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침,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효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시 :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 실습위주 집중교육)

■ 모집인원 : 장소관계로 선착순 10명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보금정사 주지혜문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소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관이 막히고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하여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